

『生産秘方』과 『胎産心法』, 『胎産秘書』, 『大生要旨』, 『達生編』의 編制 비교 연구

¹장아령, ^{1,2}금경수

¹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²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mation of 『Saengsanbibang』 and 『Taesansimbub』, 『Taesanbiseo』, 『Daesaengyoji』, 『Dalsaengpyeon』

¹Ah-Ryoeng Jang, ^{1,2}Kyung-Soo Keum

¹Prof. Graduate School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aengsanbibang』 is Obstetrics technical books published in 1915. After the publishing of first edition, it was published 15 times so I supposed that this book was very popular in that times. And this book is also valuable because Obstetrics books written in Korea are uncommon. But there had not been enough detailed study on this book, so I tried to study on the formation of this book. For that, I compared the formation between this book and 4 kinds of typical Obstetrics technical books in Qing dynasty, 『Taesansimbub』, 『Taesanbiseo』, 『Daesaengyoji』, and 『Dalsaengpyeon』. As the result, 『Saengsanbibang』 referred to 『Dalsaengpyeon』 for the contents that the reason and prevention of distocia, the basic principle for antenatal care, and the formulae to tonify blood. The contents that the taking methods of Saenhwatang (生化湯) according to the diseases, are mainly affected by 『Taesanbiseo』. Some contents which had been referred in 『Taesansimbub』, 『Daesaengyoji』 weren't referred to 『Saengsanbibang』. So 『Saengsanbibang』 is valuable because this book easily summarized the medical knowledge for spreading it to ordinary people. I look forward to more specific study for 『Saengsanbibang』.

Key words : 『Saengsanbibang (生産秘方)』, 『Taesansimbub (胎産心法)』, 『Taesanbiseo (胎産秘書)』, 『Daesaengyoji (大生要旨)』, 『Dalsaengpyeon (達生編)』

I. 緒論

『生産秘方』은 黃瓚¹⁾이 編纂한 산부인과 전문 서적으로 1915년²⁾에 初版發行 되었고, 7년 동안 15版이 인쇄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에 학문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회체제였고, 여성교육을 당시 사회의 철저한 유교사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체로 강력한 성리학적 가치 체계에 얽매어 남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상태³⁾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선 시대에 7년 동안 15版이 인쇄될 정도면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서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본 서적에 대한 간단한 해제에 관한 정보만 있을 뿐 자세한 연구가 없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산부인과 전문서적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출산을 전후로 신체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갖게 되며 평생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임신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 수술과 약물에 의존도가 높아 많은 부작용으로 건강을 잃어가는 현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접수 ▶ 2016년 05월 16일 수정 ▶ 2016년 05월 30일 채택 ▶ 2016년 05월 30일
교신저자 ▶ 금경수,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315호
Tel : 063-850-6847 E-mail : kskeum@wku.ac.kr

1) 黃瓚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정확한 인물에 대한 조사는 어려웠으나, 『達生編』, 『産科秘書』, 『丹溪纂要』 등의 서적을 인용하고 있는 바, 인용서적 중 『達生編』 초판 발행 시기(1715년), 『生産秘方』출판 시기(1915년)를 고려할 때, 朝鮮時代 말경의 인물로 推定할 수 있다.

2) 1915년 : 원문에는 大正 四年이라 표기되어 있다.

3) 천화숙.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과 신사임당』. 역사와실학회. 2006:31:164.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22년에 재 발행된 『生産秘方』의 편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편제의 연구를 위한 비교 서적으로는 『生産秘方』 청대 四大산과의서인 『胎産心法』⁴⁾, 『胎産秘書』⁵⁾, 『大生要旨』⁶⁾, 『達生編』⁷⁾을 선정하여 『生産秘方』⁸⁾의 編制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서적은 청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산부인과 전문서적으로 4권에 관한 합간본 『産科四種』⁹⁾도 편찬되었으며 태전 금기사항, 태전 교육, 임신 진단을 위한 맥진 법, 임신초기에 나타나는 입덧과 감기, 학질, 임신중독증과 같은 산전 증상부터, 수태, 보태, 난산에 이르지 않게 하는 분만 촉진법, 난산치료법, 태아를 지키는 방법 등의 내용과,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시기별 조리법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며, 출산 후에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까지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4권의 서적이 각각 산전, 산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각 서적의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 종합해보면 산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또한 우리나라 『東醫寶鑑』 婦人門을 비교 서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生産秘方』의 서문에 참고 서적으로 『達生編』, 『胎産秘書』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볼 때 청대 부인과 서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시대적 비교 대상으로 조선시대 『東醫寶鑑』 婦人門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生産秘方』과 『胎産心法』, 『胎産秘書』, 『大生要旨』, 『達生編』의 편제를 각각 밝히고, 목차를 일괄적으로 비교하여 각 서적의 편제상 특징을 비교 고찰함을 통해 『生産秘方』이 가진 편제상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II. 本論

1. 『生産秘方』의 편제

『生産秘方』¹⁰⁾은 총 2卷 1冊 19章이며 9行 20字로 구성되어 있다.

上卷은 6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 1章은 總論과 或問의 2개 節로 나누어져 있으며 1節 총론은 10개 款으로 2節 或問은 19개 款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章은 既産調護로 14개 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3章 産後用藥十誤는 10개 節로 제 4章 保胎는 6개 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 5章 飲食은 4개 節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 6章 方藥은 11개 節로 구성되어 있다.

下卷은 13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 1章 産後生化湯論은 25개 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제 2章 生化湯原方은 30개 節로 구성되어 있고, 제 3章 生化湯應用은 16개 節로 제 4章 産後泄方은 2개 節로 구성되어 있다. 제 5章 痢方은 7개 節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 6章 産後膨脹方은 3개 節로 구성되어 있다. 제 7章 乞遵丹溪醫案方以救絶穀은 2개 節로 제 8章 産後嗽立三方은 3개 節로 구성되어 있고, 제 9章 産後嗽立三方에서는 3개 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0章 産後類癰症分二症立三方에서는 寒熱往來와 大便不通의 2개 節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 1節 寒熱往來은 3개 款으로 제 2節 大便不通은 3개 款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1章 乳少는 21개 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제 12章 種子奇方은 1개 節로 제 13章 經驗은 4개 節로 구성되어 설명하고 있다.

黃瓚이 著撰¹¹⁾敦牂¹²⁾년에 저술하였으며 호는 荷汀이고, 조선말경 사람으로 추정하며 黃瓚의 生涯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분만을 권하고, 産母와 胎兒를 보호하여 難産을 초래하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산전조리와 보태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고, 임신과 분만 시 血氣를 補하는 처방법과 산모나 가족이 분만 전후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산모에게 좋고 나쁜 음식을 구분하여 주었고, 잘못된 처방 10가지도 기술되어 있다. 또한 산후에 生化湯을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산후에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4) 閔純璽 著. 『胎産心法』. 上海:章福記石印. 1735.

5) 陳笏庵 著. 『胎産秘書』. 上海:江東書局. 1911.

6) 千頃撰 著. 『大生要旨』. 上海:掃葉山房. 1884.

7) 亟劑居士 著. 『達生編』. 南京:素食同緣社. 1868.

8) 1922年 大東印刷柱式會社에서 印刷하여 新舊書林에서 發行한 『生産秘方』을 연구 자료로 삼는다.

9) 엄순재, 극재거사, 당친경, 왕가구. 『産科四種』. 上海:江東書局. 民國 1915.

(형태사항 : 胎産心法3卷6冊, 胎山秘書1冊, 達生編1冊大生要旨2冊, 共10冊 1包匣 : 挿圖, 四周雙邊 半郭 17.4×11.9 cm, 無界, 18行36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20.0×13.4 cm)

10) 黃瓚 著. 『生産秘方』. 京城:新舊書林. 1922.

11) 著撰(옹저) : 친간에서 戊를 이르는 말.

12) 敦牂(둔장) : 고갑자에서, 지지의 일곱 번째인 午를 이르는 말. 戊午年(조선시대 무오년이었던 1798년, 1858년 중 하나로 추정한다.)

질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生化湯을 중요시 여겼고, 출산 전후로 산모에게 질병에 생겼을 때 生化湯의 복용법과 응용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유즙의 분비가 적을 때의 치료법과 아이를 잘 낳기 위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방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生産秘方』 上下卷의 편제

	章名	節名	款名
上卷	一章	産前調理總論	總論 10款 或 問 19款
	二章	既産調護	14節
	三章	産後用藥十誤	10節
	四章	保胎	6節
	五章	飲食	4節
	六章	方藥	11節
下卷	一章	産後生化湯論	25節
	二章	生化湯原方	30節
	三章	生化湯應用	16節
	四章	産後泄方	2節
	五章	痢方	7節
	六章	産後膨脹方	3節
	七章	乞遵丹溪醫案方以救絕穀	2節
	八章	脹方	3節
	九章	産後嗽立三方	3節
	十章	産後類瘡症分二症立三方	産後 寒熱往來 3款 産後 大便不通 3款
	十一章	乳少	21節
	十二章	種子奇方	1節
	十三章	經驗	4節

2. 『胎産心法』의 편제

『胎産心法』은 총 3卷 20章으로 구성 되어있다. 『胎産心法』의 上卷은 5章으로 제 1章 脈法, 제 2章 脈訣歌, 제 3章 金匱解, 제 4章 逐月養胎辨並慎擇醫藥論, 제 5章 受胎試驗法으로 되어있고, 中卷은 10章으로 제 1章 脈訣歌, 제 2章 保産論, 제 3章 胎殺方位, 제 4章 房中遊神方位, 제 5章 生子宜向方, 제 6章 安産藏衣宜向方, 제 7章 體玄子借地法, 제 8章 臨産須知十四則, 제 9章 難産有五因, 제 10章 催生論으로 되어있다. 下卷은 5章으로 제 1章 脈訣論, 제 2章 産後大補須分虛不虛全實三證論, 제 3章 四物湯不宜産後論, 제 4章 生化湯論, 제 5章 調攝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청나라 때 閔純堉가 雍正¹³⁾三年¹⁴⁾八月에 저술한 서적이다. 임신 진단을 위한 맥진법, 양태와 수태하는 방법

에 대해 다루었으며 분만에 이를 때의 맥진과 산모를 안정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관리하여 순산하도록 하고 난산에 이르지 않게 하는 분만 촉진법과 주의사항 및 분만관련 질환을 다루었다. 산후의 맥진과 산후의 처치, 음식과 생활을 통한 조리방법, 四物湯, 生化湯과 산후조리 및 각종 질환을 다루었다. 다른 서적에는 없는 脈法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해산할 때의 나쁜 방향, 해산할 때와 태반을 버리는데 좋은 방향, 아를 낳는 방향, 귀신이 좋아하는 방향, 아기 낳는 곳에 나쁜 기운을 쫓는 주문 외우는呪術적인 방법 등은 다른 산과 서적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표 2. 『胎産心法』 上, 中, 下卷의 편제

	上卷	中卷	下卷
一章	脈法	脈訣歌	脈訣論
二章	脈訣歌	保産論	産後大補須分虛不虛全實三證論
三章	金匱解 (方附本條)	胎殺方位 (孕婦宜避)	四物湯不宜産後論
四章	逐月養胎辨並慎擇醫藥論	房中遊神方位 (忌安床, 換帳)	生化湯論
五章	受胎試驗法 (附方)	生子宜向方	調攝論
六章		安産藏衣宜向方	
七章		體玄子借地法	
八章		臨産須知十四則	
九章		難産有五因	
十章		催生論	

3. 『胎産秘書』의 편제

『胎産秘書』는 『胎産金鍼』이라고도 하며 上, 下 2卷이고, 총 18章으로 되어있다.

上卷은 12章으로 구성 되어 있고, 제 1章 胎前總論, 제 2章 惡阻, 제 3章 胎動不安, 胎動腹痛, 胎漏下血, 漏胎跌撲動胎, 小便帶血, 제 4章 子淋, 子腫, 子滿, 子懸, 子煩, 子嗽, 子癩, 子癰, 子暗, 제 5章 外感風寒, 제 6章 霍亂吐瀉, 下痢 제 7章 熱症 제 8章 因怒滿悶, 小腹重墜作痛, 小腹虛脹閉滯, 胎冷腹痛欲瀉, 제 9章 胎驚心悸氣促脹痛不安 제 10章 兩目不明腮項腫滿 제 11章 遍身刺痛喘滿筋攣, 제 12章 因失血類中風症으로 되어있다.

下卷은 6章으로 구성 되어 있고, 제 1章 産後總論, 제 2章 生化湯論, 제 3章 惡露, 제 4章 産後用藥十誤, 제 5章

13) 雍正(옹정) : 淸(청)대 세종(世宗)의 연호. 1723년~1735년을 의미한다.

14) 雍正三年(옹정삼년) : 1735년

産後血暈, 産後厥逆, 暈厥總論, 産後血崩, 제 六章 産後類傷寒三陰症, 産後類傷, 寒三陽症, 産後類中風瘧症, 産後癱瘓症, 産後類瘧, 産後疸症, 産後汗出, 産後氣短發喘, 産後咳嗽, 産後譫語, 産後怔悸驚忡, 産後忿怒, 産後傷食, 産後泄瀉, 産後痢症, 申論瀉痢十方, 産後嘔逆, 産後霍亂, 産後膨脹, 産後口渴兼小便不利, 産後便數淋症, 産後傷脬小便淋數不止로 되어있다.

청나라 때 陳笏庵이 嘉慶¹⁵⁾十四年¹⁶⁾七月既望¹⁷⁾에 의해

간행된 의서이다. 임신초기에 나타나는 입덧과 감기, 학질, 임신중독증등과 같은 산전 증상에 대해 다루었고, 태동으로 배가 아프거나 임신 중에 자궁에 출혈이 있거나 소변에서 출혈이 보이거나 출산 후 열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고 토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의 치법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출산 후 산모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따른 生化湯 복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 하고 있다.

표 3. 『胎産秘書』 上, 下卷의 편제

	上卷	下卷
一章	胎前總論	産後總論
二章	惡阻	生化湯論
三章	胎動不安, 胎動腹痛, 胎漏下血, 漏胎跌撲動胎, 小便帶血	惡露
四章	子淋, 子腫, 子滿, 子懸, 子煩, 子嗽, 子瘧, 子癰, 子暗	産後用藥十誤
五章	外感風寒	産後血暈, 産後厥逆, 暈厥總論, 産後血崩.
六章	霍亂吐瀉, 下痢	産後類傷寒三陰症, 産後類傷, 寒三陽症, 産後類中風瘧症, 産後癱瘓症, 産後類瘧, 産後疸症, 産後汗出, 産後氣短發喘, 産後咳嗽, 産後譫語, 産後怔悸驚忡, 産後忿怒, 産後傷食, 産後泄瀉, 産後痢症, 申論瀉痢十方, 産後嘔逆, 産後霍亂, 産後膨脹, 産後口渴兼小便不利, 産後便數淋症, 産後傷脬小便淋數, 不止
七章	熱症	
八章	因怒滿悶, 小腹重墜作痛, 小腹虛脹閉滯, 胎冷腹痛欲瀉	
九章	胎驚心悸氣促脹痛不安	
十章	兩目不明腮項腫滿	
十一章	遍身刺痛喘滿筋攣	
十二章	因失血類中風症	

4. 『大生要旨』의 편제

『大生要旨』는 총 5卷 7章으로 구성 되어있다. 제 1卷은 2章으로 제 1章 纂集有關種子之法, 제 2章 強調求嗣須充精血兼養氣이고, 2卷은 2章으로 제 1章 論述胎前禁忌, 제 2章 受胎保胎之要이며 3卷의 제 1章은 述臨床産常見諸證及難産救治之法이다. 4卷의 제 1章은 記述産後諸疾的調治護理之方으로 되어있으며 5卷의 제 1章은 闡論保嬰之術로 되어있다.

『大生要旨』는 1762년에 刊行된 산부인과 의서이다. 『大生要旨』를 저술한 千頃撰은 중국 청나라 때 의사이며 원래 이름은 方淮이며 호는 桐園이다.

태전 금기사항, 수태, 보태, 난산치료법, 산후에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하였으며 태아를 보호하고 어린아이를 지키는 방법 등을 다루었고, 다른 의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태전 교육과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達生篇』, 『十産論』¹⁸⁾을 引用하였다.

표 4. 『大生要旨』 一卷, 二卷, 下三卷, 四卷, 五卷의 편제

	一卷	二卷	三卷	四卷	五卷
一章	纂集有關種子之法	論述胎前禁忌	述臨床産常見諸證及難産救治之法	記述産後諸疾的調治護理之方	闡論保嬰之術
二章	強調求嗣須充精血兼養氣	受胎保胎之要			

15) 嘉慶(가경) : 淸(청)대 인종(仁宗)의 연호. 1786~1820년을 의미한다.

16) 嘉慶十四年 : 1809년

17) 既望(기망) : 음력으로 매달 16일

18) 11세기 중국 北宋대 의학자로 字는 子建인 楊康候가 저술한 의서

5. 『達生篇』의 편제

『達生篇』¹⁹⁾은 序, 上, 中, 下卷, 補遺로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序는 4장으로 제 1장 重印達生福幼二編序, 제 2장 刪節廣布序, 제 3장 原引, 제 4장 大意로 되어있고, 上卷은 6장으로 제 1장 原生, 제 2장 臨産, 제 3장 薛氏治法, 제 4장 宜忌, 제 5장 試痛, 제 6장 驗案으로 되어있으며 中卷은 9장으로 제 1장 保胎, 제 2장 飲食, 제 3장 小産, 제 4장 産後, 제 5장 胎死腹中, 제 6장 胞衣不下, 제 7장 乳少, 제 8장 格言, 제 9장 方藥으로 되어있다. 下卷은 2장으로 제 1장 附方, 제 2장 附小兒方으로 되어있고, 補遺는 8장으로 제 1장 胎前保護, 제 2장 産後調理, 제 3장 臨産需用, 제 4장 經驗良方, 제 5장 毓胎避忌, 제 6장 逐月忌日開列於下 稀痘仙方, 제 7장 墮胎惡報, 제 8장 附達生編濟驗으로 되어있다.

청대 1715년에 亟齋居士가 저술한 산부인과 의서이다. 『達生篇』은 출판된 이후 100여 차례 중간되었으며, 일본에도 전파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²⁰⁾ 『중의문헌사전(中醫文獻辭典)』에서는 『達生篇』의 가치에 대해 “논술이 간명하고 상당이 높은 임상학술의 가치가 있으며, 고대 산과 저서 가운데 영향력이 가장 큰 책 중의 하나이다”라고 평가하였다.²¹⁾ 또한 『四部總錄』에서는 『慈雲樓藏書志』의 말을 인

용하여 『達生篇』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 책은 난산을 위해 쓴 것으로, 난산의 이유는 너무 일찍 분만하는 곳에 앉아, 놀라서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고, 함부로 산과에게 맡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지는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고, 다급하게 억지로 낳으려 해서 안 된다는 것으로 설명이 매우 상세하다. 대체로 생육은 본래 천지자연의 이치로 이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책에 기록된 처방도 모두 독하지 않으며, 많지도 않다.²²⁾ 기존의 산과의서가 산전, 분만, 산후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면 『達生篇』은 난산으로 인한 분만에 관한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때가되면 태아 스스로가 나오려 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거듭 강조하였으며 분만의 징후, 분만할 때의 유의점, 가짜 진통과 진짜 진통의 구별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지만, 출산과 관련한 처방에 대해서는 10여 가지 처방만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분만을 상편에 배치하고 산전, 산후조리 등을 뒤에 배치한 것이 특징적이다. 전문적으로 의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의서가 아니며, 문맹자를 포함한 중하층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은 통속 의서라는 것이다. 또한 출산의 담당자인 여성을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노소가 모두 읽어야 하는 교양서임을 강조하고 있다.²³⁾

표 5. 『達生編』 序, 上, 中, 下卷, 補遺 의 편제

	序	上卷	中卷	下卷	補遺
一章	重印達生福幼二編序	原生	保胎	附方	胎前保護
二章	刪節廣布序	臨産	飲食	附小兒方	産後調理
三章	原引	薛氏治法	小産		臨産需用
四章	大意	宜忌	産後		經驗良方
五章		試痛	胎死腹中		毓胎避忌
六章		驗案	胞衣不下		逐月忌日開列於下 稀痘仙方
七章			乳少		墮胎惡報
八章			格言		附達生編濟驗
九章			方藥		

III. 結論

『生産秘方』과 『胎産心法』, 『胎産秘書』, 『大生要旨』, 『達生

編』의 편제를 정리하면 표 6과 같으며, 이를 통해 『生産秘方』과 『胎産心法』, 『胎産秘書』, 『大生要旨』, 『達生編』의 편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19) 유연실. 「清代 産科 의서와 여성의 출산 : 『達生編』을 중심으로」. 醫史學. 2015;24(1):112. “達生編(달생편) : 1715년 출판된 『達生編』은 『胎産心法』·『胎産秘書』·『大生要旨』와 더불어 청대 四大 산과 의서로 불린다. 『達生編』은 여성의 순조로운 출산을 돕기 위해 쓰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0)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第 3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3880.
- 21) 餘瀛麓, 李經緯 主編. 『中醫文獻辭典』. 北京:科学技术出版社. 2000:228.
- 22) 丁福保, 周雲青 編. 『四部總錄·醫藥編』. 北京:文物出版社. 1986:414.
- 23) 유연실. 「清代 産科 의서와 여성의 출산 : 『達生編』을 중심으로」. 醫史學. 2015;24(1):127.

『生産秘方』과 『胎産心法』, 『胎産秘書』, 『大生要旨』, 『達生編』의 編制 비교 연구

『生産秘方』은 難産을 초래하는 원인과 예방법, 산전조리와 보태를 위한 기본 원칙, 분만 시 血氣를 補하는 처방법과 등은 『達生篇』을 참고하였으며 출산 후 산모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따른 生化湯 복용법은 『胎産心法』에서도 다루었으나 『胎産秘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또한 『胎産心法』의 임신 진단을 위한 맥진법과 해산할 때

의 나쁜 방향, 태반을 버리는데 좋은 방향, 아들 낳는 방향, 귀신이 좋아하는 방향, 아기 낳는 곳에 나쁜 기운을 쫓는 주문을 외우는 呪術적인 방법 등과 『大生要旨』의 태전 교육, 임신초기에 나타나는 입덧, 감기, 임신중독증과 같은 산전 증상과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등은 『生産秘方』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표 6. 『生産秘方』, 『胎産心法』, 『胎産秘書』, 『大生要旨』, 『達生編』의 편제 비교

章	生産秘方		胎産心法			胎産秘書		大生要旨					達生編				
	上卷	下卷	上卷	中卷	下卷	上卷	下卷	一卷	二卷	三卷	四卷	五卷	序	上卷	中卷	下卷	補遺
一章	産前調理總論	産後生化湯論	脈法	脈訣歌	脈訣論	胎前總論	産後總論	纂集有關種子之法	論述胎前禁忌	述臨床産常見諸證及難産救治之法	記述産後諸疾的調治護理之方	闡論保嬰之術	重印達生福幼二編序	原生	保胎	附方	胎前保護
二章	既産調護	生化湯原方	脈訣歌	保産論	産後大補須分虛不虛全實三證論	惡阻	生化湯論	強調求嗣須充精血兼養氣	受胎保胎之要				刪節廣布序	臨産	飲食	附小兒方	産後調理
三章	産後用藥十誤	生化湯應用	金匱解(方附本條)	胎殺方位(孕婦宜避)	四物湯不宜産後論	胎動不安, 胎動頻繁, 胎漏下血, 漏胎跌撲動胎, 小兒帶血	惡露						原引	薛氏治法	小産		臨産需用
四章	保胎	産後泄方	逐月養胎辨並慎醫藥論	房中遊神方位(忌安床, 換帳)	生化湯論	子淋, 子腫, 子滿, 子懸, 子煩, 子嗽, 子癢, 子癩, 子暗	産後用藥十誤						大意	宜忌	産後		經驗良方
五章	飲食	痢方	受胎試驗法(附方)	生子宜向方	調攝論	外感風寒	産後血量, 産後厥逆, 暈厥總論, 産後血崩							試痛	胎死腹中		毓胎避忌
六章	方藥	産後膨脹方		安産藏衣宜向方		霍亂吐瀉, 下痢	産後類傷寒三陰症, 産後類傷寒三陽症, 産後類中風瘧症, 産後癰疽症, 産後類疔, 産後汗出, 産後氣短發喘, 産後咳嗽, 産後諸語, 産後怵悸驚中, 産後忿怒, 産後傷食, 産後泄瀉, 産後痢症, 申論淨利十方, 産後嘔逆, 産後霍亂, 産後膨脹, 産後口渴兼小便不利, 産後便數淋疔, 産後傷胎小兒淋數不止						驗案	胞衣不下		逐月忌日開列於下稀痘仙方	
七章		乞遵丹溪醫案方以救絕殺		體女子借地法		熱症									乳少		臨胎惡報
八章		脈方		臨産須知十四則		因怒滿悶, 小腹重墜作痛, 小腹虛脹若帶, 胎冷腹痛欲瀉									格言		附達生編濟驗
九章		産後嗽立三方		難産有五因		胎驚心悸氣促脹痛不安									方藥		
十章		産後類癰疔分二症立三方		催生論		兩日不明腮頰腫滿											
十一章		乳少				遍身刺刺痛滿筋摩											
十二章		種子奇方				因失血類中風症											
十三章		經驗															

서적들이 나온 시기를 살펴보면 『達生編』, 『胎產心法』, 『大生要旨』, 『胎產秘書』, 『生産秘方』의 순이다. 『生産秘方』은 『産科四鍾』중 가장 먼저 나온 『達生編』과 가장 나중에 나온 『胎產秘書』의 출산 후 산모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따른 生化湯 의 處方法을 상당부분 참고하였으며 그중 『達生編』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生産秘方』上卷에서는 「産後用藥十誤」를 제외한 모든 章에서 『達

生編』을 引用하였고, 下卷에서는 『達生編』의 「生化湯原方」, 「乳少」, 「種子奇方」, 「經驗」을 引用하였다. 또한 上卷의 「産後用藥十誤」와 下卷의 生化湯을 응용한 處方法은 『胎產秘書』를 가장 많이 引用 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生産秘方』의 또 다른 引用書로는 『胎產心法』, 『大生要旨』, 『詩經』, 『易經』, 『書經』, 『難經』, 『産寶百問』, 『婦人良方大全』, 『丹溪纂要』 등이 있었다.

표 7. 『生産秘方』의 대표 引用書

『生産秘方』上卷				『生産秘方』下卷			
	목차	達生編	胎產秘書		목차	達生編	胎產秘書
一章 1節	産前調理總論	○		1章	産後生化湯論		○
一章 2節	或問	○		2章	生化湯原方	○	○
二章	既産調護	○		3章	生化湯應用		
三章	産後用藥十誤		○	4章	産後泄方		○
四章	保胎	○		5章	痢方		○
五章	飲食	○		6章	産後膨脹方		○
六章	方藥	○		7章	乞遵丹溪醫案方		
				8章	脹方		
				9章	産後嗽立三方		
				10章	産後類瘡症分二症立三方		○
				11章	乳少	○	
				12章	種子奇方	○	
				13章	經驗	○	

『生産秘方』은 분만 전후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나 행동 지침에 대해서도 산모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조선시대 서민 사회에서는 숙언, 경구들의 적용에 의한 구두 교육이나 생활 교육에 그쳐 노래 형식에 의존하거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²⁴⁾ 비전문인들에게도 의학지식을 전파하도록 쉽고 간단하게 요약한 서적임으로 7年 동안 15版 發行되었을 정도로 인기 있었던 이유라 생각한다. 理氣를 충분히 하여 胎兒를 보호하고, 임신과 분만 시 血氣를 補하는 처방법과 産後에 調理하는 方法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옛 處方을 많이 참고하여 그중 안전한 처방만을 기록하였다. 또한 청대 의서들은 난산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보다는 난산일 때 어떠한 처방을 할 것인가에 관한 치료법을 자세하게 다루었던 반면 다른 산부인과 의서와는 달리 분만과정에서 생기는 난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과 가정용 자가 치료 지침서로서 구비해 놓을 것을 당부하고 『生産秘方』을 널리 알려 산모와 태아의 안전에 대비하여야 함을 강조했던 서적이다. 또

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나온 산부인과 전문서적이 없었으므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生産秘方』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를 기대해본다.

參考文獻

1. 黃瓚 著. 『生産秘方』. 京城:新舊書林. 1922.
2. 閔純璽 著. 『胎產心法』. 上海:章福記石印. 1735.
3. 陳笏庵 著. 『胎產秘書』. 上海:江東書局. 1911.
4. 千頃撰 著. 『大生要旨』. 上海:掃葉山房. 1884.
5. 亟劑居士 著. 『達生編』. 南京:素食同緣社. 1868.
6. 염순새, 극재거사, 당천경, 왕가구 著. 『産科四種』. 上海:江東書局. 民國 1915.
7. 천화숙.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과 신사임당」. 역사와실학회. 2006;31:164.

24) 김종택. 『조선의 여인』. 서울:문화출판사. 1984:102.

8. 유연실. 「청대 산과의서와 여성의 출산 『達生編』을 중심으로」. 醫史學. 2015;24(1):112, 127.
9. 丁福保, 周雲青 編. 『四部總錄·醫藥編』. 北京:文物出版社. 1986:414.
10.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第3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3880.
11. 餘瀛鼇, 李經緯 主編. 『中醫文獻辭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00:228.
12. 김종택. 『조선의 여인』. 서울:문화출판사. 1984:102.